

아주인성 9주차 토론(사회인의 덕: 배려) 보고서

미디어 201721107 박성범

젠더 논의에서 군대는 단골 소재인데,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토론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남성만 징병 되는 것이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것은 남성 징병제가 부당하기 때문에 여성도 징병을 해야 성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가장 먼저 병력 증가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큰 문제다. 지금도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월 21만원이라는 낮은 급여를 받으며 복무하고 있는데, 병력이 배로 증가한다면 병사 개개인에 대한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여성 병사를 위한 각종 시설과 물품 등을 확충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당장 일반 부대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병력 조정은 주변국에 매우 위협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미국의 항모 재배치가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지 돌이켜보면 징병제 확대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병영 내 성범죄인데, 사관학교에서도 여군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한다면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군대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건수는 최근 4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강간,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성범죄였다.¹ 군대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이러한 범죄는 쉽게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은 매년 OECD 성 평등 지수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계나 기업에서의 성차별도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적으로 봐도 여성은 사회 진출이나 급여,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²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에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면 성차별을 해소하기보다는 여성 억압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여성징병제보다는 모병제 실현을 외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발표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사병을 줄이고 첨단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병제의 실현을 중심으로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토론에서 누군가 군가산점제 폐지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채용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는 미필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에도 직결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군가산점제보다는 복무 중 단절되는 커리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전역 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징병제에 관한 논의에서 여성 징병이 논의의 중심이 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뿐이다. 여성징병제는 남성들이 군복무

¹ 한옥자, 『경기 WIFI vol. 98』,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1쪽.

² "'유리 천장 지수' OECD 중 일본에도 밀려 꼴찌 기록한 한국", <중앙일보>, 2017.3.9, <<http://news.joins.com/article/21352260>>, (2017.12.15).

로 잃어버린 2년을 보장해주지 못할뿐더러, 성차별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부당함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여성이 아닌 제도에 맞춰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토론 중 마지막 패널이 여성혐오라는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며 일반 남성들의 인식을 비판해 다른 패널에 비해 많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징병제나 군가산점제에 관한 이야기도 이때 나온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패널들도 이미 성평등이 이뤄졌다고 말해 조금 아쉬웠다. 특히 우리 학교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높아 여성 인권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텐데, 성폭력 상담센터를 제외하곤 젠더 문제를 다루는 공식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양성평등 위원회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³ 성평등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³ "유명무실 양성평등위원회. 바뀔 것인가", <아주대학보>, 2017.4.12,
<<http://press.ajou.ac.kr/news/articleView.html?idxno=786>>, (2017.12.15).